

# 실천 농가에 인증마크... 돈 버는 구조 만들어줘야

동물복지형 축산 해외에서는?

■ 각국 동물복지형 축산 인증마크



덴마크 영국 미국 프랑스

동물복지 농장에 인증마크

생산제품 비싼 가격에 팔려

해외 동물복지형 축산 사례는 지난해 열린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이 지역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전시에 출품된 미국의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이 고안한 도살장은 철저히 동물의 입장에서 설계됐다. 소의 움직임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뒤 죽음을 앞둔 소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도살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꼬불꼬불한 좁은 통로를 만들었다.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동물복지가 사람의 건강만 먹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국가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아예 닭과 돼지를 키우지 못하며, 도살도 합부로 하지 못한다.

영국에는 '프리덤 푸드'(freedom food)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 인증하고 동물복지형 축산하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부착한다. 프리덤 푸드 제품은 보통 20% 정도 비싸게 팔린다. 프랑스·미국·덴마크 등의 나라도 동물복지형 축산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인증 마크(사진)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동물복지가 사람의 건강만 먹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국가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아예 닭과 돼지를 키우지 못하며, 도살도 합부로 하지 못한다.

영국에는 '프리덤 푸드'(freedom food)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 인증하고 동물복지형 축산하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부착한다. 프리덤 푸드 제품은 보통 20% 정도 비싸게 팔린다. 프랑스·미국·덴마크 등의 나라도 동물복지형 축산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인증 마크(사진)를 부여하고 있다.

## ■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하려면... 유통 시스템 구축·국고 지원 시급

“동물복지형 축산을 하면 뭐하니? 돈을 못 버는데.”

전남도의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가'에 선정된 구례 초원목장 박종현(29)씨는 젖소 120두를 매일 10만㎡의 방목장에 매일 방목장에 소를 풀어 놓고 있다. 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풀도 뜯어먹을 수 있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밖의 젖소들이 생산한 우유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하지 않는 다른 농장과 똑같은 가격인 1등급 기준 1당 1010원에 팔리고 있다. 우유 회사들이 농장을 돌며 탱크 로리에 일괄적으로 우유를 담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동물복지형 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축사의 밀집도를 낮추고 동물운동을 만드는 등 비용이 들고 생산성은 다소 떨어지는 반면, 제 가격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정된 축사에 더욱 많은 동물을 사육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축산 농가들이 동물복지형 축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다.

동물복지형 축산이 자리 잡은 외국의 경우, 동물복지형 축산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20~30% 고가에

팔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물복지형 축산에 도전하고 있는 농가들은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박종현씨는 목장 인근에 치즈 만들기 체험 시설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동물복지형 축산을 홍보할 계획이다.

영광에서 소 450두를 사육하고 있는 청보리한우 유경환씨도 국내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 넓은 방목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란 소를 시중가보다 10~20%가량 비싸게 받을 수 있었다.

또 담양에서 닭 5000마리를 방목하고 있는 송홍주씨도 지난 15년간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늘려가면서 시중가보다 3배가량 비싸게 방목 닭을 판매하고 있다.

전남도가 동물복지형 축산 농가 10곳을 선정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판로를 개척해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물복지형 축산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실천 농가들의 소득이 증가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다른 농가들의 참여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고 지원 등 정부의 관심이 적다. 우리나라 FTA를 맺은 EU가 밀집 사육 금지



5일 전남도가 선정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가' 중 하나인 영광 청보리한우 농장 축사에서 소들이 건초를 먹고 있다. 최근 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이 주목받고 있다.

를 교역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동물복지에 포함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국내 동물복지형 축산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난 3월20일 산란계부터 시행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는 앞으로 돼지(2013년), 닭(2014년), 한우·젖소(2015년)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나마 전남지역은 지난 2006년부터 동

물복지형 축산의 초기 형태인 친환경 축산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적정 사육 밀도와 축산환경 개선, 동물복지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덕분에 전남지역에 친환경 축산 농가는 2101호로 전국(5918호)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 때도 이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축산 육성자금 10조원을 조성해 농가에 지원해주자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 기금은 동물복지형 축산을 시도하려는 농가에 연리 1~2%에 지원되며, 이 돈으로 동물 운송장과 개방형 축사 등을 만들자는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박주선은 자신의 미래 알았을까?

### 4년 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법안 대표 발의 법안 통과됐다면 구속 면하고 수혜자 됐 가능성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를 미리 알았는지.

박 의원이 4년 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자신이 당사자가 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2008년 9월 초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26조)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즉시 회부하고, 법사위는 사건의 진상과 증거 유무, 체포·구금의 합법성 등 '적정성'을 조사해 15일 안에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아가 법사위가 진상 조사 후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까지도 결정토록 했다. 현행법 26조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 체포·구금 등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게 박 의원(당시 민주당 소속)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 차이로 결국 무산됐으며, 당시 '동료 의원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이 같은 개정안이 추

진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박 의원도 수혜자가 됐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 덕분에 구속은 면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여·야가 검토에 본격 들어간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측 박용진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이런 문제에 있어 반드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다른 문제"라며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을 정하기는 어려워 자유 투표로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회는 2003년 12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모두 부결시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강운태 시장, 진정한 소통으로 난맥행정 풀어야”

### 광주시민단체협치 시정 평가

광주시민단체협치위원회는 5일 민선 5기 2년 광주시정 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강운태 광주시장은 진정한 참여

와 소통으로 난맥행정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협치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운태 광주시장은 민선 5기 들어 국내외 투자

유치와 국제행사 개최, 지역현들을 슬기롭게 풀어내 행정달인의 면모를 과시했다”며 “하지만, 전반기 이러한 성과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강운태 효과'는 그리 직접적이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21은 자치행정분야 평가를 통해 입찰비리 등을 지적하며 강력한 시정혁신을 통한 시민 신뢰회복을 요구했다. 광주 경실련은 공약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일부 공약은 실적 부풀리기와 불리한 정보 감추기 등을 통한 왜곡이 있었다”며 “객관적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과 광주호 뚝 높이기 사업 반대는 시민친화형 민관협력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한 반면 도시재생사업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등은 세부정책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협치위원회는 ▲정책집행 모니터링단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범위 확대 ▲입찰행정 감시·평가 등 법적 기반 구축 등을 광주시য়ে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귀하를 위한 품격있는 골프장**

친환경 나비고장 함평에 오시면 사계절 양잔디, 한쪽의 수채화 같은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이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출인원 대박을!!**

로또 누적방식 출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 홀에 겁니다.
-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 출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 하게 됩니다.
  - 10%는 차기 출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 소득세는 수상자 부담입니다.
- 누적된 상금액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론트에 게시됩니다.
-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리시코스 20번홀입니다.

**진초록 양잔디 키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국광리 산 1-6 예약전화: 061-7700-7777

## 빛의 만평

- 김종두



살다보니 웃을일이 있긴 있구나